

서구 화정1동 260여 명, 반려식물 체험 '눈길'

탄소중립 체험기회 공유 및 지구의 소중한 알려



서구 화정1동 새마을문고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제27회 환경의 날'을 기념해 마을 어린이들에게 지속가능 발전 및 탄소중립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지구의 소중함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21일 화정1동 내방공원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마을 주민 200여 명과 어린이 6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이 날 어린이들은 마을 어른들과

함께 쓰다 남은 페트병에 식물을 심어 화분을 만드는 등 반려식물 체험 활동을 가졌다.

화정1동 새마을문고 김옥자 회장은 "이번 행사가 어린이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와 생활속 실천 활동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달호 기자

포토뉴스



동구, 아동학대 예방 부모 교육·캠페인 동구는 지난 18일 화동 무등산 아이파크아파트 일대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과 관련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화동 무등산아이파크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학부모, 조부모, 아동 등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훈육 방법 ▲자녀와 의사소통 방법 ▲아동 권리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도기 기자



광양제철소, 치매 어르신 안전 시설물 사업 발대 광양제철소가 포스코 글로벌 모범시민 위크를 맞아 광양 중마노인복지관에서 '사랑의 안전 시설물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사랑의 안전 시설물 사업'은 안전 시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 재가 어르신 거실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양=조순희 기자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환경 골든벨 개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뿐인 지구를 생각하며 보호하기 위해 제 27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 가족과 함께하는 도전 환경 골든벨을 개최했다.

/순천=조순희 기자

청암대, 전남 중등학교 교장단 연수 실시



청암대학교는 전남 중등학교 교장단 연수단이 전문화된 직업교육을 위한 실습교육 시스템과 차별화된 직업교육과정에 따른 다양한 진로 발견에 대한 현장연수 프로그램으로 청암대학교 인공광학과와 웹툰디자인학과를 방문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최상적인 학과에 대한 정보교육에서 탈피하고, 지난 10일 전문화된 교수들로부터 직접 4차 산업에 기반한 끊임없이 변화되고 발전되고 있는 직업교육 현장의 실습실에서 직접 체험하고, 이러한 교육을 통한 다양한 진로 방향에 대한 토론식 교육이 진행됐다.

/순천=조순희 기자

광주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보호 한마당 행사' 개최

'인권의 온도 36.5℃, 행복한 우리 365일' 주제 진행



광주시교육청이 21일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학교시설지원단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장애학생 인권보호 한마당 행사는 이달 10~24일을 장애학생 인권보호주간으로 설정한 가운데 '인권의 온도 36.5℃, 행복한 우리 365일'이라

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시교육청은 동·서부교육지원청과 함께 관내 교직원과 학생 대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중·고교 특수교육대상자 84명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 마술·샌드아트 공연 관람 및 체험'을 운영했다. 특히 모래와 빛으로 전하는 스토리텔링 공연을 관람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장애 인권에 대한 생각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어 공연 관람을 마치고 학생들이 직접 느낀 점을 샌드박스에 자유롭게 표현해보는 체험도 진행했다.

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중·고등학교 24개교에 영화 '학교 가는 길'을 활용한 '장애 공감 교육자료'를 배포했으며 교원 23명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 연수'도 실시했다.

/김도기 기자

목포대 '청년 해외취업 사업' 연수생 전원 해외취업 성공

국립목포대학교는 전남도에서 공모한 '2021년 전라남도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2년 연속 연수생 전원이 100% 미국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도에 주소를 둔 청년에게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 국제적 직무역량과 실무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한 청년고용촉진사업이다.

목포대는 지난 2020년 연수생 24명 전원 미국 취업 성공에 이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운영한 채용형 인턴(미국) 과정의 연수생 24명(목포대 16명, 호남대 5명, 조선대 2명, 순천대 1명) 전원이 ▲물류회사(FNS, Nippon Express 등) ▲화장품 연구소(Cosmax, Innovation) ▲방송국(KBN TV) ▲항공사(Asiana Airlines) ▲건축회사(Sea Pac) ▲금융기관(Woori America Bank) 등 20개 미국 내 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목포대 최동오 인재개발원장은 "최근 2년간 지역 청년의 해외 진출 성과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잠재력을 가진 지역 청년의 해외진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명부를 받습니다

김희필(전남도립도서관 관장)씨 부인상

▲문정애씨 별세, 김희필(전라남도립도서관 관장)씨 부인상 = 21일, 광주 국민장례문화원 201호, 발인 23일 오전. 062-606-4000

강진고 '온라인 국제교류 Hello, e-Friends' 선정

中 응현시 제일중고등학교와 첫 영상통화로 교류 시작



강진고는 전남도교육청에서 마련한 '2022 글로벌 전남 온라인 국제교류 Hello, e-Friends' 지원 학교로 선정되어 중국 응현시 제일중고등학교와 온라인 교류를 하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팬데믹의 상황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국제교류를 통한 상호문화 존중과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1인 1외국인 친구 사귀기를 통하여 외국어 학습 동기부여 및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상호문화 존중과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1인 1외국인 친구 사귀기를 통하여 외국어 학습 동기부여 및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진고는 중국어 선택 학생들이

중심으로 학교단위 수업 및 문화 활동 교류, 또래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1인 1친구 사귀기, 개인 또는 그룹의 SNS 교류 등을 통해 상호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지훈 학생은 "오늘 중국 친구와 1대 1 매칭이 되었는데 중국어가 서툴러서 걱정이 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어를 보다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강진고는 지난 16일에 첫 화상통화를 하며 교류를 시작했으며, 월 1회씩 본격적인 온라인 국제 교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진=한홍수 기자

광주기독병원, 우크라이나 난민 건강지원

의료사각지대 고려인마을 정착 난민 건강 살피



광주기독병원이 광주에 정착한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 의료지원에 나선다.

광주기독병원은 광주고려 사람들·세움과나눔과 우크라이나 난민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광주에 정착한 우크라이나 난민은 433명이며 이번달 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우크라이나 난민은 대부분 어린이와 노인, 여성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최소 6개월여 동안은 법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 병원에 가더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 치료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기독병원은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건강을 살핀다. 또 의료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의 건강을 지원한다.

광주기독병원 관계자는 "전정파 해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건강을 살피고 지원해 희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

서진여고 '2022 나이팅게일 선서식'

7월부터 병원실습 시작 2학년 간호과 학생 대상 실시



서진여고가 지난 15일 2학년 간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21일 서진여고에 따르면 '2022학년도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오는 7월부터 병원 실습을 나가는 2학년 학생들이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이어 실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의식이다.

15일 선서식에서 간호과 2학년 19명은 촛불의식과 윤리강령 선서를 통해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며, 실습에 책임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

아울러 간호과선·후배와 선생님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비대면으로 학부모님과 교사들이 축하 메시지를 전해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 이날 선서식에는 서진여고와 MOU를 맺은 서광병원 김인호 인사부장, 김은자 인사부장이 참석해 장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자리를 빛냈다.

고민수 교장은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축하하며 나이팅게일 정신을 이어받아 간호과 학생들이 병원 실습을 열심히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광양 옥곡면 '아듀! 옥곡역' 추억콘서트

옥곡역 역사 알아보고 추억의 버스킹 등 일상에 활력 선사



광양시 옥곡면은 폐역이 된 옥곡역을 기념하며 제7회 '아듀!! 옥곡역' 추억콘서트를 개최했다.

옥곡역은 경전선 복선화 사업으로 인해 2016년 6월 13일 22시 열차를 끝으로 운영을 시작한 지 48년 만에 폐역이 됐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 17일 옥곡역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 가수와 주민이 함께하는 추억의 버스킹을 통해 코로나로 지쳐있는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을 가졌다.

'아듀!! 옥곡역' 추억콘서트는 이우연(LH)호니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토끼순가락난다, 김만중, 김현이, 김정남, 박혜영, 프렌즈하모니, 정현봉, 김용안(노래 '옥곡역'의 원곡 가수) 등 지역 가수들이 출연했다.

문성기 옥곡면장은 축하사에서 "제7회 '아듀!! 옥곡역' 추억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옥곡역의 추억을 영원히 가슴 속에 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한다"면서 "옥곡역을 공인화하고 옥곡역사 기록관을 만들어 후대에 물려주는 사업을 추진해 명품 옥곡역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순희 기자